

	<h1>보 도 자 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		
책 임 자	신진창 과장(2156-9850)	담 당 자	김준 사무관(2156-9859)	
배 포 일	2016.2.17(水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1매

제 목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

1.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2016.2.17(水)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상호금융업 감독규정」 개정안을 의결
- 동 개정규정은 금융규제개혁 일환의 ‘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’(15.9.10) 후속조치로,
 -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①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건전성 분류 합리화

- (현행) 고정이하 여신 채무자의 출자금·공제해약환급금·유가증권 담보대출금, 금융기관 보증부대출금 → 요주의
- (개선안)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‘정상’ 및 ‘요주의’로 구분
 -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, 금융기관(신용보증기금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, 보증보험회사 등) 보증부대출금 → 정상

- 유가증권(국공채 및 통안채에 한함) 담보대출금 → 요주의

* '03년 법개정으로 출자금 질권설정이 금지됨에 따라 출자금은 제외하고, 주식·회사채 등 가치변동성이 큰 유가증권은 현금성 담보 인정 제외

②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

- (현행) 회생절차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기준금리* 이상 이자를 수취하는 ‘정리채권’ → 요주의

* 프라임레이트 :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가장 좋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최저·우대금리

- (개선안) 기준금리 이상 이자 수취 여부 대신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‘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’된 ‘회생채권*·회생담보권**’ → 요주의

*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: 정리채권 → 회생채권

**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회생담보권 추가 → 포함 여부 명확화

③ 경매 진행중인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등 합리화

- (현행) 경매 진행시 회수예상가액(최종법정평가액*) → 고정

* 최초 감정가액에서 유찰시마다 20%씩 감액(최초 감정이 1억, 1회 유찰 8천, 낙찰가 9천인 경우 최종법정평가액은 8천, 매각허가결정가는 9천임)

- (개선안) 매각허가 결정 이후 ‘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(매각허가결정가)’ → 요주의*

* 단, 결산확정 이전(분·반기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) 매각결정에 대한 매각대금 미납,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 발생시 최종법정평가액(고정)

④ 요주의 분류 대상 부실징후 예시의 적용기준 정비

- (현행)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부실징후* 예건 또는 발생중 → 요주의

* ① 3년 연속 결손 / ② 완전 자본잠식 / ③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④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 / ⑤ 3월 이상 조업 중단 / ⑥ 6월 이내 1차 부도발생

- (개선안)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**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인 경우에는 '정상'으로 분류하는 등 부실징후 예시** 규정을 정비

- 또한 신설법인, 정책자금대출, 2년 이상 연체 없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부실징후 예시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'정상'으로 분류

⑤ (가)압류·가처분 등 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 명확화

- (현행) 담보물에 대한 (가)압류·가처분 → 고정
- (개선안) ①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*,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며, ③ 연체되지 않은 경우 → **요주의**

* (예) 소액 체납, 이혼 재산분할소송 등 사유

⑥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합리화

- (현행) 폐업중인 채무자 대출 → 고정
- (개선안)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중이더라도, 객관적 소득확인 또는 영업(타 사업)의 계속을 증명*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판단 → **정상 또는 요주의**

*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관련 자료 등

⑦ 채무불이행정보 등 등록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강화

- (현행) 대출 실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**정상 상환중**이나, 타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→ **요주의**
- (개선안) 신용정보 등록 내용상 연체금액이 1,500만원 이상이고, 연체기간이 감독규정상 '고정'(3개월 이상)에 해당하는 경우 → **고정**

*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적용 제외(저축은행 例, 준용), 급격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(예 : '17.1.1 이후 적용)

⑧ 채무조정채권의 상향 분류기준 합리화

- (현행)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**상향조정** 가능('13.5월 금융위 행정지도사항*)

* '16.5.23까지 유효한 행정지도로 연장 없이 중앙회 내규로 규정 예정

구분	채무조정 프로그램	채무조정 개시 시점	조정내용
자산 건전성 분류 조정	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(1~3개월 연체차주)	정상 요주의	• 6개월 이상 정상 상환시 → '정상'
	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(3개월 이상 연체차주)	고정이하	< 채무상환이 확실히 되는 경우로서 > • 상환기간의 1/4 이상 또는 2년 이상 상환시 → '고정' • 상환기간의 1/3 이상 또는 4년 이상 상환시 → '요주의' • '요주의' 변경 후 1년 이상 상환시 → '정상'
	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(연체우려 또는 3개월 미만 연체차주)	정상 요주의	< 채무상환이 확실히 되는 경우로서 > • 1년간 상환하고 • 타 금융회사 채권액의 합계가 당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액보다 작으며 •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 → '정상' • 재연체 발생시 기존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• "정상" 분류 이후 총상환기간의 1/2이상 정상상환시 재연체가 발생하여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 연체기간 미가산
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			

- (개선안) 중앙회가 금융위 행정지도 취지에 부합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**내규화***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
* 4개 중앙회 공통의 기준 마련

3. 기대효과

- 타 업권에 비해 다소 엄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충당금 적립 부담 경감에 따른 상호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

4. 향후계획

- 동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. 다만, <별표1-1>의 개정규정은 2015.12.31일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부터 적용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